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4문) : 예수님의 지옥으로 내려가심

최민호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 1. 사도신경 개요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이 만들거나 공의회(公議會 Council,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공적으로 모여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회의체)에서 결의하여 만든 것이 아님

- ⇒ (1)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신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정리. (성경의 주요 가르침)
- (2) 새신자들이나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 (교육 목적)
- (3) 교회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형성. 따라서 유사한 여러 본문이 존재 (역사적 가치)
- (4)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가르쳐 준 신앙내용을 계승하기에 “사도신경”. (예수님의 가르침)

### 2. 사도신경의 역사적 형성 ⇨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사도신경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자가 고백해야 할 가르침

#### (1) 2세기 교부(敎父 Church Father, 교회의 신학적 지도자)

##### ① 안디옥의 이그나시우스(Ignatius 107년 경)

- v.1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의 후손이요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된 말을 하면 귀를 막으십시오. 그는 실제로 태어나셨고, 식사를 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으사 고난당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존재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 v.2 그분은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부께서 그를 살리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를 성부께서도 일으키시니 그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없습니다. (The Epistle of St. Ignatius of Antioch to the Trallians 9:1,2)

##### ② 사도들의 편지(Epistula Apostolorum, 150년경)

- v.2 우리 요한, 도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매, 마태, 나다나엘, 셀롯 유다, 게바가 동서와 북과 남의 교회들에게 편지하여 선포하고 나누어 주노니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과 만진 것과 또 그가 어떻게 크고 기이하고 참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과 같이 기록하노니 (⇨ 죽으심과 부활)
- v.3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주 곧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사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온 세상의 주재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사라. 그는 모든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시니라. (⇨ 성육신, 창조주, 구속주)

##### ③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증언(Justin Martyr, 165년경)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이 처음부터 한 분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분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미래의 전령이자 저명한 제자들의 교사로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The Acts of Martyrdom of St. Justin and companions)

#### (2) 3세기 ⇨ 고백형식으로 나타나기 시작

##### ① 발리제 파피루스(200년경 이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육체의 부활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나이다.”

##### ② 로마의 히폴리투스 (⇨ 요한사도의 증손자) The Apostolic Tradition of Hippolytus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시었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님과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3세기 이후에 수많은 유사한 신경(信經, 신앙내용을 요약 정리한 고백서)이 로마지역에서 나타남.

- (3) 8세기 이후 사도신경의 공인된 형식  
 프리미니우스(Priminus)의 소책자 (De Singulis Libris Canonicis Scrapus 710-724)  
 ...→ 공인형식(Textus Receptus)

3. 사도신경 공인본문과 한국 사도신경과의 차이점

⇒ 사도신경의 공인본문에는 “지옥에 내려가사(descendit ad inferna, He descended into hell)”있음.

한국어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지옥강하가 빠진 이유?

- 언더우드의 장로교 사도신경에는 있었으나 아펜젤러의 감리교 사도신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음.
-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으로 찬송가를 발행하면서 사도신경에서 지옥강하를 빼게 됨.

4. 칼뱅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지옥강하”고백의 중요성

J. Calvin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 육체의 죽음뿐이었다면, 그 죽음은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엄격한 천벌을 받았다. .... 그는 마귀의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셔야 했다”(Inst., II,16:10)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정복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게 하심이다.” (Inst., II,16:11)

⇒ 지옥강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Otto Weber) Inst. II,16:10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요나의 모형에 따라 그리스도의 육체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지옥강하 교리의 유익>

1.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당하는 극심한 고뇌와 치욕을 영혼으로도 당하심. (⇒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감당)
2. 우리를 지옥의 고통과 고뇌로부터 구원하심.
3. 우리를 지옥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 (※ 구원의 참된 위로)

5. 로마교회의 가르침의 오류

(벧전3:18-19)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 He went and made proclamation to the spirits now in prison

(바른 해석) 육체는 죽으시고, 그의 영혼은 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자연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고, 그의 살리심(부활)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라는 의미

그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19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 (벧전4:6)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추셔서 알리셨다는 뜻.

(로마교회의 림보 교리의 오류)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유아들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원죄가 남는다. 이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그 중간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연속 어느 곳도 아닌 림보(limbo)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  
 ⇒ 2007년 유아림보 교리를 천주교에서 폐기함.  
 “구약 성도들의 영혼들이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 거하도록 정해진 림보에 머문다”  
 ⇒ 비성경적인 가르침. (cf. 성경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